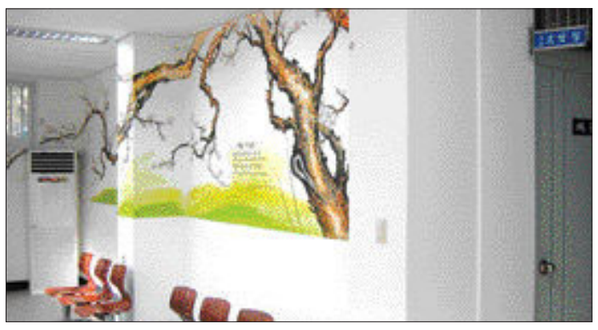

장흥지원 피고인 대기실 벽화 등 단장 '산뜻해졌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지원장 정준영)의 피고인 대기실이 최근 벽화로 산뜻하게 단장됐다. 〈사진〉

남자대기실은 산과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산수화로, 여자대기실은 매화 그림으로 장식, 통상 2~3시간 대기하는 피고인들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준영 장흥지원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하는 피고인들에게 심리적 치료효과는 물론 자기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술적인 공간으로 꾸미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그림은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에서 생약초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학씨와 김금남씨가 아크릴 물감과 먹으로 보름 동안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땅끝 '실버휴양타운' 들어선다

2008년까지 해남 송지면 5만여평에 조성

방갈로·게이트볼장 등 건립 투자양해각서

해남 땅끝에 '실버 휴양관광 타운'이 들어선다.

해남군은 지난달 29일 (주)형민관광레저(대표 이형기)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까지 송지면 통호리 땅끝조각공원 주변 5만8천여 평 부지에 민자 443억을 투자해 실버타운을 겸한 관광자연농원이 조성된다.

'실버휴양 관광자연농원'은 콘도와 펜션, 방갈로를 비롯해 관광농원, 자연학습원, 자연휴양림, 식물원, 분재단지, 전망대 등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선다.

또 부대시설로는 썰매장과 게이트볼장, 해수탕, 레스토랑이 마련된다.

군은 현재 토지적정성 평가 완료와 진입도로기반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남군은 이를위해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팬션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신청과 기반시설사업비로 국비 10억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해남군은 예정부지의 경치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땅끝과 송호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인 사구미 해수욕장, 땅끝 조각공원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해 휴양 및 관광지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땅끝 실버휴양관광자연농원이 조성되면 인근 땅끝조각공원 등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땅끝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목포시, 올해 12억 투입

목포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목포시는 지역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억 5천100만원을 투입, 849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개발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생과일을 갈아 판매하는 웰빙카페를 비롯한 실버 플라워, 행복한 가게 사업단, 콩나물 재배 판매단, 남도소리 공연단 등 5개 분야다.

근무 조건은 1일 4시간, 주 3일 근무로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고흥경찰 '포돌이 양심방' 깨끗한 경찰상 확립 앞장

고흥경찰서 (서장 김학영) 청문감사관실에 설치된 '포돌이 양심방'이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렴 경찰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포돌이 양심방'은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됐을 때 신고하면 금품제공자를 찾아 되돌려 주는 제도. 지난달 26일 수사과 강력팀은 절도 및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위반 사건 관련자가 사례로 1~2년생 산삼 6뿌리가 들어있는 상자를 놓고 간 것을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했다.

또 지난달 28일 탄포초소에 찾아온 김모(45)씨가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전경대원들의 회식비로 써달라며 현금 25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으나 대원들이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했다.

김학영 서장은 "앞으로 경찰관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나 불친절이 없는 투명하고 친절한 경찰서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무청만 뜯어간 산지 폐기 무 영암 시종면 봉소리 일대에서 무청이 제거된 겨울 무가 을씨년스런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 가격 폭락과 농산물 포장 출하에 따라 겨울 무 주산지인 시종면 일대에서는 시래기 재료인 무청만 헐 값에 구입하는 상인들의 출입이 잦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일제하 섬주민 징용 굴착 땅굴 16개·벙커 등 발견

신안 자은면 깃대봉 일대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깃대봉 일대에서 일제 강점기 때 섬주민들을 징용해 굴착한 땅굴 16개와 벙커가 발견됐다. 〈사진〉 인근 비금면 섬에서 일제 때 조성된 포 진지와 땅굴이 종종 확인됐으나 이처럼 대규모로 발견되기는 처음이다.

목포에서 뱃길로 1시간 20분 거리인 깃대봉 산자락에서 깊이 10여m에 유자(U)형으로 서로 연결된 이 땅굴은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조성이 완료된 것과 공사가 진행되던 땅굴 등 다양한 형태로 발견됐다.

주민들은 일제 패망기인 지난 1944년 일본군이 인근 섬 주민과 자은도 주민들을 강제징집 형태로 모집해 24시간 3인 1조 2교대로 하룻밤에 2m씩 땅굴을 팠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안군 향토사학자 고경남씨는 "일본군이 서해 항로의 군사 요충지 거점방어와 예비 보급창고로 활용하기 위해 땅굴을 판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조사와 함께 땅굴을 정비해 산교육장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새얼굴

"농산물 판매증진 모든 역량 집중"

나승운 농협 나주시지부장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나승운(50)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장은 "지역 농산물 판매증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농협의 경영혁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 세지가 고향인 나지부장은 광주상고와 한양대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75년 농협에 입사, 목포·나주권역보증센터 지점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정성자(47)씨와 1남 3녀, 취미는 바둑과 독서.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지역 관광·친환경농업 육성 주력"

한재식 농협 곡성군지부장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친환경농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신임 한재식(52)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장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회원농협과 상호협조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광 출신으로 지난 1976년 농협에 입사한 한 지부장은 광주공판장장 및 전남지역본부 기획·총무팀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류현자씨와 2남1녀.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안정적 전력 공급… 최고 고객서비스"

조명근 한전 신안지점장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객서비스를 실천하는 한전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임한 조명근(53) 한전 신안지점장은 "효율적인 선로운용 및 감시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 고향인 조지점장은 지난 1978년에 입사해 곡성지점장과 전남본부 총무·기획과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행자씨와 1남2녀가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제 2회 영랑문학제' 4월 강진 생가 일원서

영랑 김윤식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제 2회 영랑문학제'가 오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강진읍 남성리 영랑생가 일원에서 열린다.

(사) 영랑기념사업회, 계간 시와 시학사가 공동주관하는 영랑 문학제는 영랑 시문학의 밤, 영랑시 낭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또 모교인 서울 휘문고 교정에 영랑시비가 세워진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